

강진군, 청렴교육으로 연간 30억 이상 경제 효과

연수원 생활관 증축 비용 180억 정부 기금으로 충당 교육생 1만명에 이르면 관내 지출예상액 120억 이상 공공기관 넘어 기업체까지 영역 확대 '청렴교육 메카'

‘다산의 숨결이 깃든 청렴교육 1번지’ 전남 강진군에 전국의 공직자, 교직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단체 교육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다산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산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6만명 이상의 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해 명실상부한 청렴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지난 2020~2022년 정상 운영되지 못하다가 2023년 교육 과정을 정상화, 총 96회 과정에 3,928명의 교육생이 강진을 방문했다.

교육비 수입은 각종 체험(푸소농가, 문화·예술·레저, 강진음식 등), 버스임차, 간식 등으로 연간 30억원 이상 관내 소비로 이어졌으며, 교육생들의 개별적인 소비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은 금액이 소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산 청렴교육은 다산의 청렴과 애민정신, 소명에 관한 강의와 다산초당, 사외재, 백운동정원 등 다산의 발자취를 따라 느끼는 현장 체험으로 구성, 교육을 통한 자기 성찰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크게 4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정규과정 2(다산공직관 청렴교육·공무원 푸소(FU-SO) 청렴교육)와 수시과정 1(다산체험 청렴교육), 특별과정 1(다산가족캠프)로 구성돼 있다.

이중 공무원 푸소(FU-SO) 청렴교육은 다산공직관 청렴교육에 강진만의 특색있는 농가체험인 푸소체험을 접목해 청렴교육을 받으며 농가에서 시골의 정을 느껴보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교육생 만족도가 높고, 기수당 교육생 정원이 70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소문난 과정이다.

다산체험 청렴교육은 공공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일정과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편성·진행되는 과정이다. 최근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급상승,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연수원 시설상 제약으로 수료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지난해 정부 기금 확정을 통해 진행중인 강진읍내 다산청렴연수원 생활관 증축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80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한다.

생활관은 기존 40실에서 64실을 연수원 부지 내에 더 만들어 모두 104실을 운영할 계획



이다. 최근 트렌드에 따라 1인1실 기준이다.

기존 연간 4,000명 수준이던 교육생을 1만 명선까지 확대해 나간다. 교육생 1인당 3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30억원 이상이 지역에 뿌려지며 증축 후에는 산술적으로만 해도 120억원에 불과한 알파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교육생의 강진 일정은 연수원 내에서 강의만 있는 것이 아닌 관내 현장 체험과 음식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된 지역 상권 활성화는 자연스레 이뤄진다.

강진읍 강진군수는 “기존에 공직사회로 국한됐던 청렴이 현재는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가치라고 생각된다”며 “교육대상을 공공기관에서부터 기업체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청

렴교육의 메카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원 생활관 증축에 따라 교육생이 획기적으로 늘면 그만큼 강진 관내가 활기로 가득찰 것”이라면서 “군민들의 남다른 정성과 친절한 손님맞이로 교육생들과 그들의 가족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산박물관(다산청렴연수원)은 지난 3월 정규과정인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1기를 시작으로 다산 청렴교육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8회(정규과정 18, 수시과정 17, 특별과정 3)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버섯 가공품 특허기술 권, 팜파·순화농장 이전

완도군이 보유한 버섯 가공품 특허기술 2건이 민간 분야에 이전된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전북 버섯 기능성 분석과 상품화 연구를 위해 주식회사 팜파, 순화농장 등 2곳과 버섯 가공품 특허 기술 통상 실시계약을 체결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북노타리버섯 함유 ‘완복환’ 제조기술을 팜파에, 버섯 재배 키트 ‘복이핀’ 기술을 순화농장에 각각 이전한다.

전북노타리버섯과 복령, 홍삼 등 각종 한방 원료를 사용해 만든 완복환은 건강 기능 식품으로 면역력 향상과 기억 보강 효과가 있다.

전북노타리버섯은 노타리버섯 종류 중 하나다. 요리했을 때 육질이 전북과 비슷하다고 해 이름이 붙여졌다.

버섯 재배 키트 복이핀은 가정에서 손쉽게 버섯을 재배해 신선한 버섯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섯 생산 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체험학습도 가능하다.

이복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버섯 가공품 특허 기술 이전이 버섯 소비 촉진과 기능성 특산물 생산으로 이어져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송준표 기자



진도군, 자발적인 주민 참여로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 숲속의 전남 만들기...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경관개선·공동체 의식 함양

진도군이 진도읍 북상리 진도읍성과 군내면 만금리 울돌목 무궁화동산 일원에 주민·단체 참여숲을 조성한다.

주민·단체 참여숲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주민 또는 단체가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숲을 조성·관리함으로써 주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단체 참여숲을 생활권과 도심권 유희지에 총 16개소 조성해 도시열섬·폭염 완화와 탄소중립 실

현 등에 일조했다.

올해는 북상리 가로숲과 만금리 무궁화 마을숲을 주민·단체 참여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을주민과 단체가 함께 수목, 무궁화, 초화류 등을 식재하고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마을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진도군 산림휴양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숲 조성과 관리를 위해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자연사자원 공동 학술조사 업무협약

국립문화재연구원·국립중앙과학관·경북대 자연사박물관과 체결

장흥군이 천연기념물 및 자연사자원 공동 학술조사연구와 자료 공유를 위해 관련 기관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장흥군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장흥군,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경북대 자연사박물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나선 기관들은 장흥군 일대의 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같은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확보한 자연유산 연구자료는 4곳의 기관이 공유하고, 국민에게 장흥군의 역사적·경관적 가치의 우수성을 알려나가기로 했다.

공동 학술조사연구는 계절별로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 공동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연구성과물을 국민들에게 전시를 통해 공개한다.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외에도 생물 정보를 개방·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생물분류군에 비해 이를 연구하는 전문연구자가 부족한 현실에서 각 기관 전문연구자들이 협력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간에 맞춰 조사성과를 정리하여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내에 기획전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장흥군의 천연기념물과 자연사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 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자연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관련 연구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해남군,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

해남군이 2024년 전라남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는 송지면 행복한 무화과농장으로, 친환경 무화과 재배 기반 확충을 위해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사업은 외래해충인 무화과 곰보바구미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해충유입 방지 그물망이 설치된 하우스를 시설하게 된다.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을 위해 생산·유통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ha 이상 친환경 농경지를 경작하고, 친환경 과수 채소를 생산(예정 포함)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원한다.

군은 공모를 앞두고, 사업 신청자와 군 관계자, 전문가 등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면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공모평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서부취재본부송준표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진흥원

전라남도